

#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돌봄청 신설”

## 더불어민주연합, 돌봄·의료·민생·장애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연합)은 8일 돌봄, 의료, 민생, 장애인노동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 공동대표는 이어 “늘봄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로 ‘돌봄청’(가칭)을 신설하겠다”며 “지금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로 분절돼 있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 기구로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늘봄학교처럼 교육예산을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학교에 들어가던 예산을 나눠

서 써야 한다”며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은 후보는 “건강보험 100% 특화 병원인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병원 전체의 진료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가령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급속 스텐트 시술은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3~4개를 써야 할 환자도 있다”며 “의료진이 전문 자격 판단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하되, 병원 전체가 쓰는 스텐트 개수가 환자당 1.5개 정도로 벗어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김 후보는 또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효과적이지만 너무 고가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은 기존 내시경 수술 진료비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참조 가격제’ 도입도 공약했다.

아울러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 진료 내용도 제출하게 하고, 실손보험 계약 구조를 현재의 가입자-보험사 간 2자 계약에서 가입자-보험사-병·의원 간 3자 계약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미화 후보는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오세희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을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충선 브리핑

## 안도걸 “아시아문화전당 접근성 높이겠다”

### 광주 동남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후보는 8일 “생활체육,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 이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생활체육·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중장축제 발전 대책, ACC의 시민 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논했다.

그라운드골프 협회, 생활무용 협회, 패러글라이딩 협회 관계자들은 생활체육의 시설·공간·예산 부



족과 ACC에 지역예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장 축제 진행 업체가 서울 등 타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생활체육, 문화예술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CC의 시민 접근성을 높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

## 신정훈 “친환경직불금 확대·급식비 국가 지원”

### 나주·화순 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후보가 지역 사회 단체들과 충선 협약을 맺고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신 후보는 8일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권리 중심 노동으로 이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또 한농연나주시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 후보는 이어 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직불금 확대,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친환경 학교·



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 후보는 화순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지책,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전남마을활동가협회와도 공동 협력·실천을 위한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신 후보는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예산,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김선우, 장성·함평 소상공인 애로 청취

###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

김선우 새로운미래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4개 선거구 집중 유세 동선을 세우고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김 후보는 9일 오전 영광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장성으로 이동,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다시 함평으로 이동해 지역 상인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바닥 민심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서 “문화미디어 부문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영광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고려대를 거쳐 복직TV 사장을 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문금주 “고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

문금주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는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고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흥에 국내 유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중합비행성능지원센터가 위치해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국가산단도 지정된 만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고흥으로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문 후보 설명이다.

문 후보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고흥에 항공우주 연구원을 유치, 우주항공산업 우수기업이 지역에 들어 서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분원 유치가 고흥에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김현준, 홍운오, 이수정 후보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한동훈, 경기도 박빙지 방문 지지 호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지금 범피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이천·안성 등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다.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양문석 후보에 대해 여러분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엔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돌려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리 유세를 마치고 “일하는 척했다”고 말한 부분도 겨냥, “저희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오늘은 쌍방을 대복승금 재판 결심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복안이 좋아서 복판에 가기 위해 쌍방을 통해 돈을 갖다줬나”라고 꼬아붙였다. /연합뉴스

## 조국, 광주 네번째 방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광주를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8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9일 오전 부산과 대구를 방문하고 같은날 오후 4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사거리를 찾았다.

조 대표의 광주 방문에 앞서 강경숙, 서양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광주 곳곳을 돌며 비례대표에 조국혁신당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올해 네번째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1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3월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 3월 30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발전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